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 미 증시, 미-이란 협상 교착, 단기 랠리 부담 등으로 숨고르기 장세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7일(월) 미국 증시는 단기 랠리 부담 속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난항 소식, M7 실적 대기심리 등으로 장 중반까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이후 엔비디아(+4.0%), 마이크론(+5.6%), 샌디스크(+8.1%) 등 반도체주 강세로 낙폭을 축소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1%, S&P500 +0.1%, 나스닥 +0.2%).

미-이란 2차 협상은 일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용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진통 끝 협상 타결”을 전제로 전쟁 리스크를 주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는 함. 다만, 미국, 한국 모두 최근 급등 랠리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상승 피로감과 경계감도 누적된 만큼, 미-이란 협상 혹은 여타 다른 이슈들이 차익실현을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단기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전일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긴 했으나, 3월 말 이후 40% 넘게 급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1.0%)가 1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점도 마찬가지. “수요 및 투자 확대에서 기인한 AI 산업 성장 사이클 지속”이라는 펀더멘털 상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지만, 주가 상으로는 단기 속도조절 욕구가 커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따라서, 주 중반 이후에 몰린 M7 실적 이벤트가 종료되기까지 현재 주도주인 AI,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개별 종목들의 장중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

전일 코스피는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 재확대에도, 금요일 미국 나스닥 신고가 돌파, 국내 주력 업종들의 1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속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6,600pt를 돌파(코스피 +2.2%, 코스닥 +1.9%).

금일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론 신고가 경신 소식에도, 최근 연속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에 영향을 받을 전망. 전반적인 증시 상단은 제한된 채, 삼성 SDI, 현대건설, 두산로보틱스 등과 같은 ESS, 원전, 로봇 업종들의 실적 이벤트를 소화하며 종목 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

현재 코스피는 4월 이후 약 31% 급등하면서 6,600pt를 돌파했으며, 월간 기준으로 1998년 2월(+51%)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경신. 지난 1월(+24%), 2월(+20%)에 이어 역대급 월간 랠리를 연출 중에 있지만, 기술적인 과열 부담은 지난 2월 6,000pt 돌파 당시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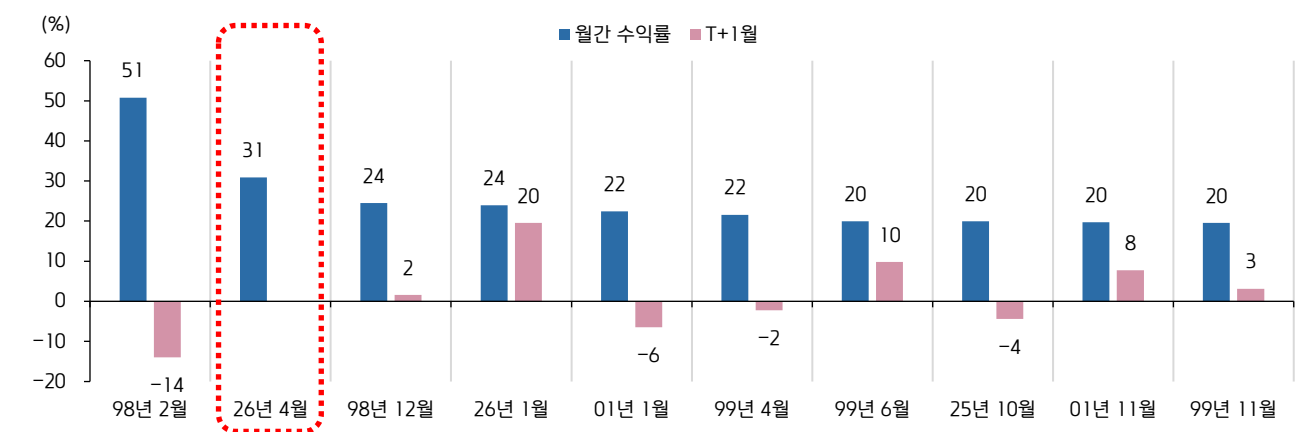
예를 들어, 이격도(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는 27일 현재 111%대로, 2월 말 코스피가 단기 고점을 기록했을 당시 수치인 115%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한 모습. 상대강도지수(RSI, 특정기간 평균 상승폭/평균 하락폭, 70 pt 이상이면 과매수, 30pt 이하이면 과매도)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임. 27일 RSI는 70pt로 과매수권 영역에 들어왔으나, 2월 말 당시에는 85pt 이상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기술적 과열 신호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지만 코스피200의 옵션 값으로 예상 변동성을 측정하는 VKOSPI가 54pt대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은 신경 쓰이는 부분. 3월 중 연속적인 사이드카 발동 시절(당시 VKOSPI 70~80pt)에 비해 내려오기는 했어도, 과거 10년 평균인 19pt대, 25년 이후 평균인 30pt대를 큰 폭 상회하고 있기 때문. 이 같은 VKOSPI 급등은 전고점 돌파 과정에서 FOMO 현상, 차익실현을 위한 헷지수요 등이 상하방 요인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VKOSPI가 50pt대라는 것은 옵션시장이 추정하는 향후 30일 기대변동성을 연율로 환산한 값이 50%라는 의미이며, 이를 일간으로 다시 환산하면 +/- 3.16% 수준으로 집계(영업일 250일 기준). 이는 향후에도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간 3%대 내외 추가 급등락세를 보여도 이례적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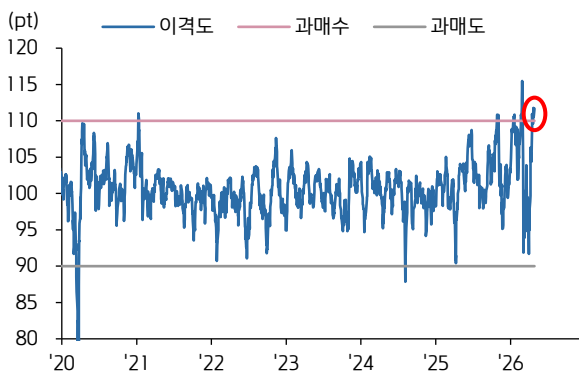
이처럼 코스피 상방이 추가로 열려 있는 강세장 국면 속에서 상/하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개별 종목들의 단기 진입, 청산 타이밍의 포착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지금은 주 중반 이후 4월 FOMC, 미국 M7, 국내 주요 기업 실적 등 시장 참여자들간 해석이 부딪치는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 주간이라는 점도 고려할 시점.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개별 실적 이벤트를 재료로 트레이딩 해볼 수 있겠으나, 반도체, 증권, 방산 등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존 주도주 비중을 유지해가는 전략이 대안.

1995년 이후 코스피 역대 월간 상승률 및 다음달 상승률: 26년 4월 +31%대로 역대 2위를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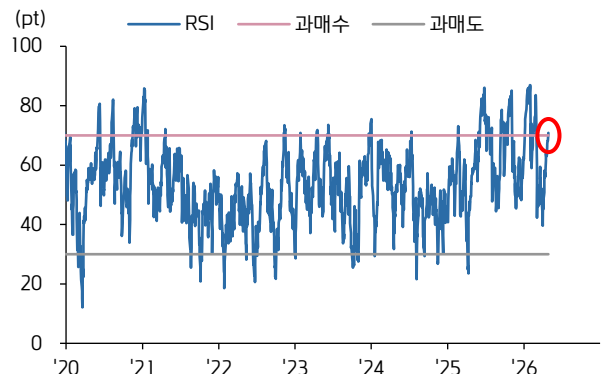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일간 이격도(왼쪽), 코스피 일간 RSI(오른쪽): 코스피 6,600pt 돌파, 월간 폭등에도 기술적으로는 과열 신호가 심하지 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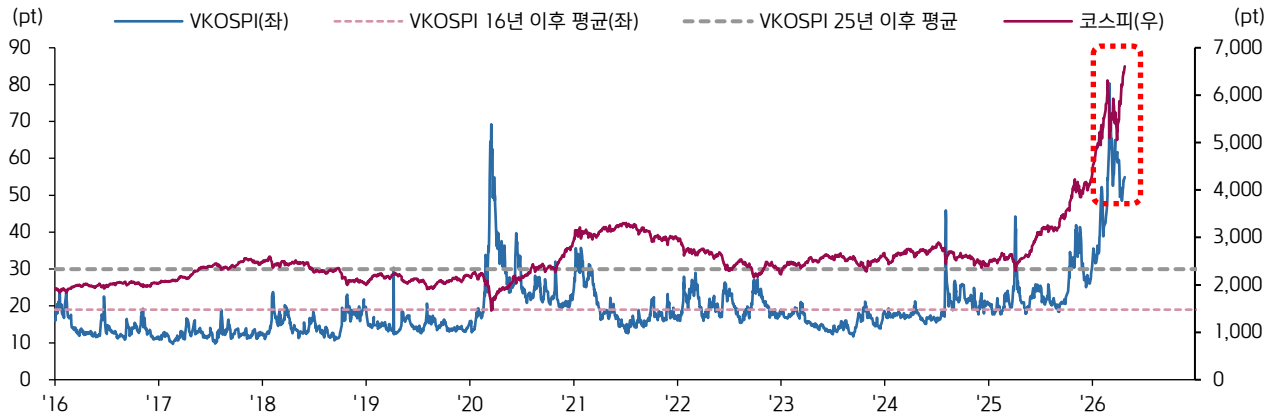


출처: 인포맥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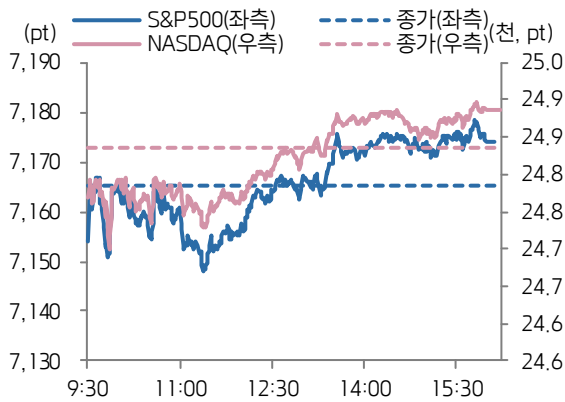
출처: 인포맥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인 VKOSPI:** 최근 랠리에도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50pt대를 상회, 이를 일간 변동성으로 환산 시 +/- 3.16%. 코스피의 일간 주가 변동률이 +/- 3%대가 일상화될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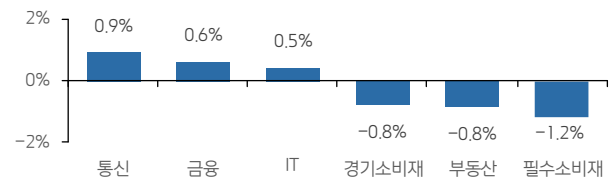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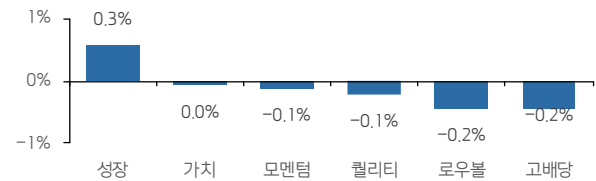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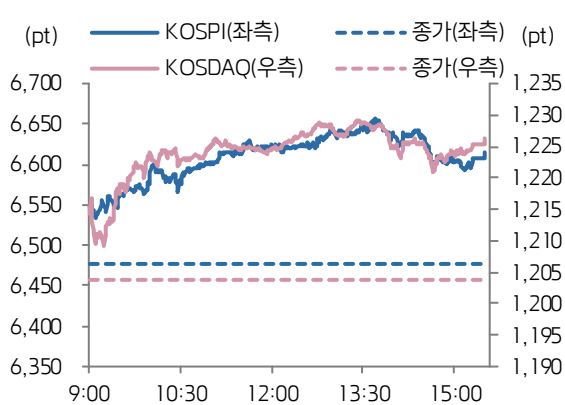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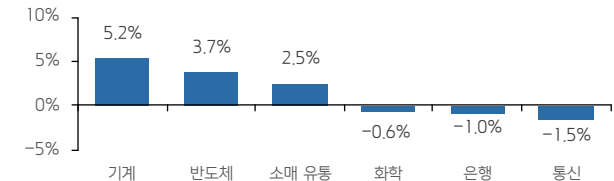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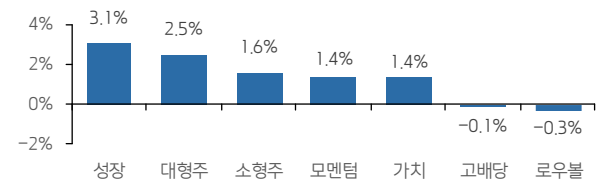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67.61	-1.27%	-1.56%	GM	77.96	-0.12%	-4.13%
마이크로소프트	424.82	+0.05%	-12.16%	일라이릴리	868.27	-1.77%	-19.21%
알파벳	350.34	+1.72%	+11.93%	월마트	127.59	-1.79%	+14.52%
메타	678.62	+0.53%	+2.81%	JP모건	311.63	+1.09%	-3.29%
아마존	261.12	-1.09%	+13.13%	엑손모빌	148.19	-0.48%	+23.14%
테슬라	378.67	+0.63%	-15.8%	세브론	184.78	-0.23%	+21.24%
엔비디아	216.61	+4%	+16.14%	제너럴일렉트릭	127.59	-1.8%	+14.5%
브로드컴	418.20	-1.08%	+20.83%	캐터필러	828.79	-0.24%	+44.67%
AMD	334.63	-3.79%	+56.25%	보잉	231.33	-0.48%	+6.54%
마이크론	524.56	+5.6%	+83.79%	넥스트에라	94.83	-0.5%	+18.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615.03	+2.15%	+56.97%	USD/KRW	1,473.60	-0.22%	+2.37%	
코스피200	995.33	+2.41%	+64.25%	달러 지수	98.48	-0.05%	+0.16%	
코스닥	1,226.18	+1.86%	+32.49%	EUR/USD	1.17	-0.01%	-0.21%	
코스닥150	2,080.49	+2.01%	+34.46%	USD/CNH	6.83	-0.12%	-2.14%	
S&P500	7,173.91	+0.12%	+4.8%	USD/JPY	159.42	+0.03%	+1.73%	
NASDAQ	24,887.10	+0.2%	+7.08%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9,167.79	-0.13%	+2.3%	국고채 3년	3.497	+0.2bp	+54.6bp	
VIX	18.02	-3.69%	+20.54%	국고채 10년	3.820	+0.5bp	+43.5bp	
러셀2000	2,788.19	+0.04%	+12.34%	미국 국채 2년	3.797	+1.9bp	+32.4bp	
필라. 반도체	10,408.04	-1%	+46.94%	미국 국채 10년	4.340	+3.9bp	+17.3bp	
다우 운송	20,843.82	-0.23%	+20.09%	미국 국채 30년	4.946	+3.9bp	+10.3bp	
상해종합	4,086.34	+0.16%	+2.96%	독일 국채 10년	3.033	+3.9bp	+17.8bp	
항생 H	8,756.32	-0.22%	-1.77%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7,303.63	+0.83%	-9.29%	WTI	96.37	+2.09%	+69.04%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08.23	+2.75%	+77.86%
Eurostoxx50	5,860.32	-0.39%	+1.19%	금	4,693.70	-1%	+6.51%	
MSCI 전세계 지수	1,075.00	+0.26%	+5.95%	은	75.03	-1.82%	+6.26%	
MSCI DM 지수	4,632.83	+0.43%	+4.57%	구리	602.10	-0.1%	+5.97%	
MSCI EM 지수	1,610.00	+0.67%	+14.64%	BDI	2,665.00	-0.3%	+41.98%	
MSCI 한국 ETF	156.73	+1.4%	+61.21%	옥수수	469.25	+1.24%	+3.2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29.75	+2.11%	+18.54%
비트코인	76,968.49	-1.61%	-12.18%	대두	1,192.00	+1.15%	+10.96%	
이더리움	2,291.75	-3.04%	-23.04%	커피	288.50	-2.17%	-11.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2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